

# 영암군 영암읍-목포도시가스과 공급사업 협약체결했다

### 세한대학교~영암읍 관로매설 · 지역정압기 설치 2883세대 혜택 연간 에너지 총비용 29억원 절감

영암군은 10월 6일 군청 남산실에서 전동평 영암군수와 정경호 목포도시가스(주)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목포도시가스(주)에서 자체재원과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127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호용 세한

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35.4km 관로매설과 지역정압기 1개 설치를 진행하고 영암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 토지의 사용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 신속처리등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을 실시하여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순현재가치(NPV Method)가 127억원, 편익/비용비율(B/C)이 1.879 > 1.0, 내부수익율(IRR)이 6.089% > 4.5%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에서는 대불교에서 정압기 설치 위치인 청소년 수련원까지 13개 구간으로 나누고, 개작, 압입, 하월 등 각 구간에 적합한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2022년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에 있다. 영암읍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되면 확정수요 2,776세대는

물론 추가 공급지역 107세대가 연간 총 에너지비용 29억원을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산호읍 일부만 공급되어 동부권 주민들의 소외감이 유발되었으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동서간의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암군에서는 수년간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주택 및 농공단지등 도시가스 수요 발생으로 영암읍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선정 국비 26억 확보

### 자명제·육산제·신광 매산제 등 총 4개 지구 선정

함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1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지역 4개 지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정비 대상은 함평

자명제·육산제, 신광 매산제, 나산 나산제 등 총 4개 지구다. 이들 저수지는 제방 누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지난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이 검토 요구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저수지 4곳 전체에 대해 긴급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제방,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을 보수·보강하면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재해위험저수지 4곳 전체에 대해 긴급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제방,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을 보수·보강하면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 무안군, 농산물가공 전문가 양성

### 교육 수료 후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창업기회 제공

무안군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가공에 관심 있는 농업인 20여명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 소규모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기초반, 심화반 2개 과정으로 나누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무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마인드 및 식품 위생안전, 식품 제조, 상품기획, 제품개발, 마케팅, 유통, 경영 등이다. 특히, 창업 아카데미 실전반은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로컬푸드와 산지유통 전략, 현장 위생관리, 제품 컨셉 개발, SNS 마케팅, 사업계획서 작

성과 농산물가공 실습수업으로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2개 과정을 모두 수료한 수료생은 개별투자 없이도 무안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황토실이라는 농산물가공브랜드 제품을 생산하는 더나눔공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본인의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제품화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개별 제조시설 투자 없이도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시,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 '명승'지정 추진

### 풍부한 문화유산 · 풍광으로 관광 · 문화적 가치 우수



목포시가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을 국가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유달산은 서남해안의 바다와 섬, 목포 도시를 한눈에 조망 할 수 있는 곳으로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피어 꽃

축제가 열리는 등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목포의 명산이다. 또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일괄(보물 제2011호) 및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28호), 목포시사(전남도 지방기

념물 제21호), 목포 오포대(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유산을 살펴볼 수 있다. 시는 유달산을 명승으로 지정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보수·관리 등에 국가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달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역사와 민속 등 인문환경 및 식생, 경관 등 자연환경, 유달산의 명승 지정에 대한 가치 및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유달산 명승 지정을 통해 목포의 랜드마크인 유달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풍광을 관리·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영광군수, 가축 방역 통제 초소 근무자 격려



영광군은 지난 4일 김준성 군수가 고병원성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24시간 근무 중인 가축방역 통제 초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근무자들에게 "영광군은 2014년 6월 이후 가축전염병으로부터 6년 연속 청정영광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하며, 2020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주변국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발생 위험성이 높으니, 닭·오리 관련 차량도 꼼꼼히 소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목포시, 지방채 121억원 조기 상환

### 재정건전성 향상

목포시가 지방채 121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양왕산 터널 개설을 위해 2005년에 발행한 지방채 400억원(이율 3%, 2021년 2월 만기) 중 채무 잔액 40억원과 지난 2013년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시가 발행한 지방채 202억원(이율 3.77%, 2024년 9월 만기)의 잔액 81억원 전액을 지난 9월 29일에 상환 완료했다. 이로써 목포시의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9.53%에서 7.4%로 감소돼 재정건전성도 향상하게 된

다. 시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함께 고통분담 한다는 각오로 긴축예산편성, 경상경비를 절감한 집행 잔액을 매년 일정액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운영한 결과이며, 이 기금은 2011년 제정되어 지방채 상환채원으로만 사용된다. 금번 지방채 121억원 조기상환을 통해 이자 4억4천만원을 절감하게 됐고, 절감된 이자와 매년 갚아야 할 채무 원리금 상환 재원은 주민 편의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에 재투입 활용하게 된다.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

함께해요!